

제 6강 자본주의 국가

◆1교시: 자본주의적 국가의 역할

▲민족국가와 국민국가

벌써 4강 째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책은 막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골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골자에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민족국가로 적으려다가(무의식적으로) 국민국가로 바꿔 적었습니다. 지금 국민하고 민족, 우리는 이게 혼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nation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번역어인 셈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nation을 뭐로 번역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다? 직감적으로 저게 이렇게 번역되면 좋겠어. 국민이 더 나올 거 같습니다? 민족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번역을 행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nation은 국민으로 번역되어야 된다고나 민족으로 번역이 되어야한다고 하는 기계적 룰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대체로는 국가의 근대적의미의 국가, 근대국가를 완성해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nation을 민족으로 새기는 경우가 많고, 더 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의 nation state를 자기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래서 nation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nation이 국가와 결착되어있는 하나의 통합된 일상적 기제랄까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민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국민국가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게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그 어떤 감각이랄까요. 이 차이가 번역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와서는 민족이라는 단어자체가 논란에 휩싸이고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아직 탄생은 안했지만 예정되어있는 상태인데, 무슨 교회죠? 소망교회가? 거기 같은 교회 다니는 김진홍 목사가 new right의 선봉이잖아요. 일종의 new right 정부가, new right가 우리한테는 불과 2,3년 전에 사실 등장한 용어이고,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건데. 지금 new right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이회창이나 이런 경우는 old right 경향이라면, 이명박은 new right 경향이죠. 근데 new right하고 new left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념적 아니면 사상적인 공통기반이 민족에 대한 비판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미 낡았다. 그 이상 어떤 정치적인 유효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 new right의 경우에는 이것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new left 같은 경우는 그것의 억압성을 더 강조하지만, 민족비판에서는 두 개가 유사성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new right는 국가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옹호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집필한 필진들의 상당히 중요한 공통부분이 민족을 비판하는데 국가는 옹호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딜레마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한국에 이게 특효한 거 같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국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제국론

을 다루니까 우리 입장에서 읽기보다는, 우리는 이걸 민족국가로 읽어도 읽히거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 사용되는 의미맥락들이 민족국가 혹은 민족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단 필자들의 사고는 민족개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국민개념에 더 가까웠으리라고 보였기 때문에 국민으로 일단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local하고, national하고, global하고 이 관계에 대해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야기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national한 것, nation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 질서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생겨났느냐. 우리 지난번에 이거는 장소적이지만 이거는 일정한 공간성을 갖는, 일정한 탈영토적 공간성을 갖는 범위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n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현미경을 갖다대가지고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거로의 이행과 이것의 어떤 내적인 구조, 역할, 기능, 또 그러다보니까 탄생하는 이거 내부의 모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위기들,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각이예요.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이거로부터 이거로의 이행이면서 이거 내부의 어떤 문제를, 그거를 살펴볼 생각인데요.

▲잉여가치와 노동계급

우선 순서가 거기 보면 국민군대국가라고 해가지고 (가),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의 (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세 번째 항으로서 써져있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하면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에 필연적이다> 이 명제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오히려 나머지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 이런 말하고는 좀 어감이 다르죠.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라고도 다릅니다. 근데 일단 자본주의로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어떤 정치형태랄까 그거를 살펴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거 같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서술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책은 오히려 우리가 다음다음 시간에 생산의 이행을 다루면서 자본주의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하거든요(이 저자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유방식, 경제하고 정치하고의 관계가 경제가 먼저 이해되고, 정치가 이해되면 우리가 더 쉽잖아요(지금 사유구조에서는). 우리가 다 듣고 나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것이 역순으로 되어도 무방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작은 정통적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Capitalism은 일단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시스템이죠. 잉여가치, 가치가 남아돌아가는 가치, 무엇에 남아돌아가느냐하면, 임금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 한 사회 노동계급이 자기가 재생산 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한 가치가 잉여가치인데, 이게 생산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본가들에게 귀속되어지는 어떤 가치형태이죠.

물론 이거는 유통 속에 들어가서, 유통과정을 밟으면서 띠게 되는 형태는 이윤이라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는가하면, 잉여가치가 national한 상황에서는 어떤 영토 속에 있는 노동계급 있죠? 이 노동계급을 관리하고 착취해서 이 영토 속의 노동계급이 소비시키지 않는 어떤 잉여가치, 그거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global한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격자 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분할되어 있는 그런 노동계급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국내시장, 그래서 domestic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데, 이때는 national이라고 하지 않고, domestic market이 바로 영토 한계 내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노동계급이 활동하는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시장을 일단 염두에 둡니다(자본이).

▲잉여가치의 실현

그런데 지금 잉여가치가 국내시장 속에서 노동계급의 노동재생산 비용 이상으로 나왔을 때 이게 잉여라고 한다면, 이 잉여를 누가 소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 잉여를 누가, 남아도는 건데, 어차피 국내의 노동계급이 소화시킬 수 없는 그 무엇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소비를 안 시켜주면, 생산된 잉여를 소비를 시켜주지 않으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지는 거죠. 잉여가치는 실현되어야 됩니다(어쨌건). 현실화되어야만 이게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되돌아오려면 정말 맑스는 자본력에 대해서 자본론 1권하고 2권, 1권하고 2권, 이게 생산과정이고, 이게 유통과정인데, 일종의 엄청난 도약을 해야만 자본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시장에서의 유통을 통해서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어떤 알파부분, surplus 부분, 잉여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 같거든요. 분명히 이 노동자들을 들들볶아가지고 착취는 했는데, 착취된 게 실현될 수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주, 여기 말한 노동계급, 국내시장 그 다음에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공장들, 이런 것도 들어갈 거 같아요. 국내에 있는 공장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계급들, 여기의 넓은 의미의 농민이라거나 기타 사회세력을 합쳐서 그냥 민중people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state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이 공간이라고 치면, 이 공간속에는 surplus가 자본가에게 결정적인 삶의 단서이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단서이면서도 이게 실현의 위기를 부단히 겪을 수밖에 없는 뭐라 그러죠?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surplus는 자국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남는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는 필연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바로 ‘바깥’, ‘외부’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것, 민중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게 자족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근대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안 풀리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인데, 이거는 실현되어야 되고,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의지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적 국가의 역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로 잠깐 눈을 한번 돌리면, 국가란 것의 역할은 우선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생산수단이 사회의 특정계급에게 독점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구조, 이게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다시피 다수가 생산수단을 각자 소유하고 있다면, 소생산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농민적 토지소유에서처럼 토지를 다수의 농민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될 필연성은 없잖아요. 취미로 난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번 팔아보마. 이렇게 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필연성은 없죠. 그러니까 어쨌건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대전제이죠. 자본주의에서 이 일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성공시키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생겨날 수 없죠. 이거는 이 이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잉여가치가 생산된 게 어찌됐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대체 잉여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지금 한 번 생각해 보면, 맨 먼저 다수를 생산수단으로 분리시켜야 된다. 근데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들이라거나 혹은 기업체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예컨대 준군사조직을 동원한 개인들이 멕시코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병들이, 군사적 사조직들이 있죠. 혹은 기업들이 할 수도 있고 한데,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 일을 맡아주지 않으면 국내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구축한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지역적, 국지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지적으로 어느 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관철이 되겠지만, 그걸 떠나고 나면 딴 곳에서는 그냥 자본주의 아닌 어떤 다른 생산관계들이 자리 잡고 있겠죠. 소생산자적인 그런 사유관계들, 그런 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전체에, 한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대중을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그것을 영토적으로 관장하는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다수 대중들을 분리시키는 일에 있어서 전면에서 나서거나 아니면 법적인 장치들 혹은 경찰력들, 군사력, 이런 등등을 사용해서 배후적인 압력을 가한다거나 간에 어쨌건 이 생산수단이 생산자로부터의 분리과정에 어떤 형태로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자본주의에서 시작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이전에 정치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됐어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가 이게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성,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그 경제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그 상상에 현실이 안 맞아 떨어지죠. 이게 이거를 규정하는가 하면 다시 이게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쌍방관계, 이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생산수단을 생산자로도 분리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맑스가 원시적 축적 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죠. 아주 유혈적 과정, 막 총을 쏘대고, 동물 몰이하듯이 농민들을 토지에서 쫓아내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나중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누누이 얘기하는 바지만 원시적 축적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그렇게 자본주의 발흥기에 잠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정기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근대사속에서 매일, 매 순간 되풀이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그 과정이다. 라고 로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외부론하고도 다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국가는 오늘날에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산하는 것, 원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의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가난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겠죠. 요즘은 과거처럼 실물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예 화폐개혁을 해버린다거나 인플레이션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수법을 쓰기도 하고, 전쟁을 통한 가난한 자의 생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의 생산 장치들은 다채로워졌다.

▲정치적 실험실, 국가

아까 해러웨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실험실 얘기를 라뚜르 강의에서도 하고, 해러웨이 강의에서도 지금 하고 실험실이라는 거를. 실험실laboratory이라고 하는 게 공교롭게도 여기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험실, 라뚜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군복무를 아프리카 가나에서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인류학리서치를 하던 중에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류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현장조사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라는 현장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화적, 경제적 생활들,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인류학자의 실험실은 가나라고 하는 그 공간이 되는 거죠(아프리카가 되는 건데).

라뚜르의 발상이 그러면 서구인들도 인류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프리카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서구인을 한 명 조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서구인들의 문화가 탄생하는, 특히 과학문명이 탄생하고 있는, 서구 문명의 핵심지대 있죠? 그게 실험실인데, 진짜 실험실이죠. 과학실험실, 실험실을 현장조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실험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걸 책으로 써냈는데, 그게 『The laboratory life 실험실의 삶』이라는 책이었다고 해요. 그 과학현장에서는, 사실은 과학적 실험은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반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협상과 타협들, 우선 돈을 끌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도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주면 그걸 조작해서 맞추고, 여러 사람들과 이거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과학실험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정식화한 게 Actor-network theory라고 해가지고 행위자 연결망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 실험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게 왜 물리과학시간에 쓰는 플라스크 있죠. 물이 흐르도록 흘러내려간다거나 기타, 제가 과학 실험실 공간에 대한 지식이 박약해가지고 어떤 도구를 예를 들어야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실험실에 정교하게 여기서 뭐가 input이 들어가고, 뭐가 흘러가다가 output이 나오고 그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치하고 국가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실험장치, 실험도구를 딱 설치해놓는 거죠. 우리 삶의. 그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쥐라거나 우리 인간을 쥐에다 비유하면, 그 쥐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선거하고 세금 내라면 어떻게 하다가 도망칠 놈은 도망치고, 공장으로 끌고 들어오고, 막 도전하는 놈들 생기고, 치면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주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험실이고(사실상), 국가라고 하는 실험 장치를 도입해 놓은 거죠.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실험실이죠. 공장, 국가, 시장은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실험장치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의 근대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삶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삶이란

건 없는 거죠(엄밀히 보면). 특정한 조건, 그래서 정치적 조건은, 실험실에서는 온도 몇 도, 습도 몇 도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인구가 대충 얼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저한의 생활비용은 얼마, 좀 잘 버는 사람은 얼마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조건들이 일정하게 부여되고 있는, 외부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실험실환경, 이게 우리의 근대국가환경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건 하여튼 이런 식의 분리작업, 이것 계속 수행을 하고 몰아주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한, 그래야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투자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럴 터이니깐.

옛그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다지원을 취재를 하겠다고 왔어요. 기자가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큰 기업체가 여기에다가 돈을 대주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통제받는 돈 같은 거는, 통제의 조건이 달린 돈은 받지 않는다. 그건 취지문에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 이런 문화공간의 생성이라는 것도 담배인삼공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공간, 실험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자기네들의 이미지문제들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담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아편인데, 이렇게 팔아서 돈을 버는 주체로서 많은 비난을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문화적 투자를 계속해서 자기네들에 올 수 있는 여론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하고, 하여튼 세금 내는데도 혜택을 얻을 거예요. 문화 사업에 투자하면 깎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터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이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조형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럼 우리는 두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잉여의 발생을 위한 전제, 이게 있는 거고, 발생한 잉여를 위한 내부적으로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생산자를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국가의 제1역할이라는 거죠(일단). 두 번째로 생산된 잉여를 외부적 방식으로, 저건 내부적인 것이죠. 내부적인 국민의 관리하는 방식, 국민을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외부적 방식으로 바로 저 과정에 생산된 거를 팔아서 이윤으로서 실현시켜주는 것, 이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둘 다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2교시 : 내부적 계급독재의 필연성

▲제국주의의 발생

그러면 국가가 뭘 성격을 한 번 보면 내부적으로는 다수대중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저항들, 도전들,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서 억압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안정되어가면 폭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하지 않더라도 공포감, 이거 내가 괜히 일어났다가는 그냥 막 끝나는 거야라는 식으로 내면에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기제들, 그게 경찰일 수도 있고, 재판소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감을 내면화시켜 놓으면, 도전행위라고 하는 거는 줄어들잖아요(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억압적 시스템 구축하는, 내부적으로는 독재죠. 독재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일단).

이거를 맑스는 부르주아지독재로 봤어요. 자본가독재인데, 국가가 전이가 되어서 수행하는 그 독재행위, 이게 필연적이다. 독재가 하나 필연적입니다. 또 하나가 필연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영역인데, 바로 외부성이거든요.

바깥으로 어떻게든 저 잉여가치를 수출해가지고, 이것을 이윤으로서 만들어내는, 잉여가치를 이윤으로서 만들어내는 것, 잉여가치는 이윤이 아닙니다. 잉여가치는 이윤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윤은 아니거든요. 이걸 이윤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게 국가의 역할인데, 바로 여기에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imperialism. 그러니까 부르주아독재의 내적 필연성이나 제국주의의 외부적 필연성, 이거는 바로 근대자본주의의 숙명인 거죠. 이 두 조건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한시도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죠.

▲부르주아헤게모니의 구축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시 한 번 잠깐 돌아가 보면, 우선 부르주아헤게모니, 일종의 여기서 독재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부르주아헤게모니의 구축, 이거는 국민국가의 구축을 통해서 달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국가라고 하는 영토적 공간, 입법, 사법, 행정 등으로 분권화되고, 그러면서 국민 대중을 대상화하는 국민국가의 구축을 통해서 부르주아헤게모니가 구축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혈연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세습성이죠. 예전의 봉건시대를 특징지었던 핏줄에 의한 어떤 세습, 신분제에 의한 세습, 이 세습성이 일종의 민족적 공간으로 변형되어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신민에서 시민으로의 이행이 있다는 것, 신민은 바로 신분적 질서 속에서 예속된 주체로 나타나는 존재들이죠. 근데 citoyen 혹은 citizen이라고 하는 것은 신민과는 달리 좀 전에 말한 부르주아독재, 부르주아헤게모니에서 훈육된, 훈육되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를 한 번 보면 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이 과정이 제2차 산업혁명의 제1국면에 상응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1948년부터 1914년 사이에 몇 개의 관점이 있죠. 노동과정, 그 다음에 소비규범, 그 다음에 규제양식, 이 세 개의 관점하고, 이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하는 문제이겠는데, 우선 자본주의가 한 편에서는 독재이고, 한 편에서는 외부로 끊임없이 내부화하는 기계장치로서의 제국주의를 내적인 본성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식민지하고 제국주의의 관계는 근대에서 반드시 자본주의로 근대가 발전 한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모든 곳에 자본주의가 동시에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 발생해가지고 그것의 외부성 논리 때문에 외부를 흡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기 논리 때문에 계속 서구 외부로 국경을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고, 바로 이 과정의 이면이 식민주로 나타난 것이죠.

제국주의가 있고 식민주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국주의적 과정이, 제국주의적 기계장치가 돌아가다 보면 바로 그것에 외부로서 주어지는 식민지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 현상의 사실은 내적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메커니즘으로 보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단일한 과정 속에 어떤 특정한 지점, 연결을 두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기계화 과정

그럼 이렇게 될 때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공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공자를 매뉴팩처에서 팩토리로의 진화과정을 밟았는데, 이 공장체제가 지구표면에 확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계하고, 기계에 투입되는 원료하고, 노동자라고 하는(생산자라고 하는) 세 개의 구성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원료를 우리가 팔호치고 보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는 일단 직접적으로 자본의 관리 하에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것도 자본의 관리 하에 들어가지만 말이죠. 이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공장이전의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기계의 전신이, 여기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도구가 그것에 의해서 부러지는 과정 있잖아요. 인간의 리듬에 도구가 종속되는 거죠. 인간이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우리가 머신, 기계를 갖다가 도입해놓고 보면, 기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리듬을 갖잖아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리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큰 자동화를 점점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기계 내부적인 과정만은 아니고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할수록 자본가는 기계를 점점 자동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와 욕망의 쫓기게 되니까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장을 마비시킬 때마다 노동자 없는 공장 없나. 그걸 꿈꾸게 되는 것이죠. 무인공장에 대한 꿈, 이게 자본가들이 늘 꾸는 꿈이죠. 기계는 하여튼 파업을 하지는 않으니까 망가지기는 하지만 싸우지는 않는 거죠. 무인공장에 대한 꿈이 자동화로 나가게 되는데, 어쨌건 점점 자본화되어가는 기계는 자율적인 리듬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자율적 리듬에는 기계라고 하는 게 인간에서 분리된 내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 외에도 가치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계의 가치는 생산된 상품 속으로 있는 그대로 정식 없이 이전되어 들어가는 가치잖아요.

기계가치가 100이라면 단 번에 100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0씩 열 번에 나누어져서 이전되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 속으로 이전되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기계는 특별한 환경 속에 있죠. 너무 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슬겠죠. 녹이

슬고, 그 다음에 놀면 놀수록 고장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품 속으로 이전 되어 들어가야 100에 가깝게 이 가치를 이전시킬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의 요인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상품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본가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노동자들이 일하면 좋겠다.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어쨌건). 이거 놀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 그건 기계외의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공장이 노는 게 만약에 8시간만 공장이 돌아가고 나머지 16시간이 공장이 쉬면, 공장이라는 거는 기계일 뿐만 아니라 토지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건데, 토지의 임대료는 계속 그 시간에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도 하여튼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 그래야만 그 가치를 100%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휴식 없는 시간, 중단 없는 시간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시간, 이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중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쉽 없이).

이 내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가 무얼 원하는지 이런 거는 일단 기계의 입장에서는 고려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화가 가져오는 결과, 이것이 원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억압적으로 되는 것이죠. 노동자를 점점 주변화시키고, 심부름꾼으로 만들고, 노예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자기리듬에 자기를 따라주도록 폭력적으로 기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한 비판, 기계라고 하는 게 인간하고 영 안 맞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팽배해서 올라요. 지금 생태주의에까지. 1930년대에는 프랑크푸르트학파들이 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문화산업의 비판의 형태로, 기계화는 관료화를 가져오고, 하여튼 문화화, 문명화 되는 거 자체가 과연 인간에게 유익한 거냐. 좋은 거냐. 선이냐. 하는 의문들이 막 나오고 특히 아나키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기계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 결과를 기계자체에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결과로서, 기계의 필연적 결과로서 자본주의 속에서 기계들이 취하는 결과하고, 기계 그 자체의 결과를 혼동함으로써 그런 공포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맑스의 기계론

맑스의 기계론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해매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기계에 대해서 모질게 비판을 해요. 기계를 도입하고 나서 공장이라는 이 공간이 인간한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공간이었다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다가도 기계라고 하는 게 막 해방의 어떤 그 수단인 것처럼 또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방은 어떤 점이나 하면, 기계를 통해서 노동자는 할 일이 없게 되지 않겠냐. 자유로워지지 않느냐. 이 자유의 시간이 바로 기계를 통해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이중적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해매게 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사실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공간형태,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 거의 지구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폐질화된 노동자들

근대적 관계, 아까 우리가 했던 비유법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사회실험실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취급방식, 실험실의 쥐는 사용하고 막 찢고 해가지고 갖다버리잖아요. 근데 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사한 운명이 쥐와 똑같습니다(보면).

맑스는 이걸 폐질화라고 부르는데, 폐질화라는 게 쓰레기로 된다는 거죠. 쓰레기로 되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잠깐 동안에 교육을 받고, 그것도 아주 억압적인 조건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공장에 취업을 했다가 폐에 분진이 찬다든지 아니면 과로노동에 의해서 온 몸에 고름이 찬다든지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해서 가족들의 잠깐의 보호를 받다가 그대로 묻히는 과정,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공장시스템 속에서는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후반 이 때의 공장에서 빵 공장을 사례를 들 때, 빵을 먹다보면 고름이 씹히는 경우가 흔해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바로 기계시스템이 가져오는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폐질화되어서 처분되는 것, 이게 노동자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폐질화에 대한 저항

근데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1848년이라거나 1870년이라거나 1905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몇 개의 해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해들에서 아주 집단적이고 거대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공장들에서는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싸움들이 일상적으로 연계되는 거죠.

꼭 그게 파업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노동자는 사장의 배를 찌르기도 하고, 공장에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 처음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러다이트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갖다가 부수는 운동이었죠. 기계가 문제다 해가지고 기계를 없애면 옛날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기계를 부순다거나 하는 식의 일상적인 저항들이 들끓기 때문에 이제 1917년 이후에 자본은 노동자의 폐질화 대신에(말은 좋은데요) 복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국민국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라면, 좀 전에 지운 근대국가가 이런 일을 했다면(1단계 국가라면), 2단계 국가가 바로 소위 복지화국가로 나타나는 거죠.

▲복지국가의 도래

근데 복지라고 하는 게 welfar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wel' 대신에 'war'를 써가지고 warfare라고(우리가 신자유주의 국가를). 이 welfare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자들이 이 관계에서 받던 wage있죠? 이 임금이, 임금에 welfare가 플러스 되는 건데, 보통 welfare는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번역하면 혜택이거든요.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불렀어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대체 이게 줄 수 있는 원천이 뭐냐는 거죠. 국가가 어디서 강도질을 해온 것도 아닐 터이고, 해왔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하늘에 가가지고 하느님한테 빌어가지고 가져온 건 분명히 아닐 터이고, 어딘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나왔죠.

근데 맑스의 설명에 따르면 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노동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산 노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산 노동이 자본주의체제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는 모습이 노동이죠. 임금노동, 지금은 임금노동이라고 부르기 힘들죠. 임금 못 받는 경우

도 많으니까.

하여튼 인간들의 활동력이 노동으로 되어 있고, 노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치라고 하는 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welfare라고 하는 것도 여기(노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wage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로 제한해놓고, 노동력의 재생산비 플러스알파인데, 이 알파는 서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향상된 생산분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눠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 강도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단위시간당 생산되는 가치량을 말하는 것이니까. 가치량이 향상되면,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가치가 생산되면, 그 말이죠. 더 많이 가치를 생산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방식으로는 노동시간이 일단 길어지는 것이겠죠. 아니면 노동시간이 길게 하지 않는다면 노동 강도를 높인다. 아니면 이제 기계류의 도입을 통해서, 이걸 특별잉여가치라고 하는데, 기계류를 먼저 도입한 기업이나 기계류를 먼저 도입해서 일반화시킨 국가는 다른 기업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잉여가치를 누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경제학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한 특별잉여가치.

2단계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참 높아지죠. 당연히 기계의 리듬이 강화되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테일러주의적인 원리에 의해서, 테일러주의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빈 시간을 없앤 사람이죠. 인간의 동작연구를 통해가지고 쓸데없는 동작들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래가지고 동작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걸로는 <모던타임즈>에 보면 밥 먹으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밥 먹이는 기계를 갖다가 가져오잖아요. 일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밥을 갖다가 입에다가 턱 집어넣어주고 하는 그런 기계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실험을 하죠(채플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엉망으로 얼굴이 범벅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풍자인거죠.

그래서 그만큼 밥 먹는 시간마저도 노는 시간으로 파악하는 자본가의 시각,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기계인데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밥 먹는 시간이든 걸어 다니는 시간이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욕망,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담이지만 지금 시대에 오게 되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여가 없이 하루 종일 노동하죠.

저도 그런 유형에 속하는데요. 심지어는 꿈꾸면서도 노동을 하거든요. 막 독일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그리고 어떤 글을 쓸 때는, 특히 글을 쓸 때는 더 그렇습니다. 구상단계에서 작품이 완성되어 나올 때까지 다른 때보다는 온몸이 거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세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몸들이 조직되고, 시간도 조직되지 않으면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몸을 많이 조직하게 되는데, 그러면 꿈속에서도 아이디어들이 계속 돌아가요. 잠자다가도 책을 읽거나 메모를 하다가 잠들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논리정연하게 전개되지 않지만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일어나서 메모하고 또 잠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인간으로 보면, 인간은 평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자기 삶을 집중해서 사는 거는 좋을 수가 있는 건데, 남들이 발간하는 잡지나 이런 데에 원고료를 받고, 이거를 써주는 과정 하고 결합이 되니까. 게다가 몇 푼 안 되는 것하고 연결이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고통스러운 노동과정으로 되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작업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소

외감을 덜 느끼지만 그래도 노동과정이 되는 거는 또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현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거나 이런 경우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글 만들어지고 그럴 때에 침대를 다 거기서 제공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게 만들잖아요. 아예 퇴근 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은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노동자는 노동하는 기계다. 라고 하는 것.

전태일이 죽으면서 나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실 노동자는 기계죠(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계이면서도 기계이고자 하지 않는 게 인간인거죠. 기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야 부인되지도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